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을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복음을 말하고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모릅니다.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분처럼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신앙이란 돌처럼 굳어 메마른 화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크게 오용되고 남용되고 허투루 쓰이는 말은 다시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서로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델로써 주님 스스로의 삶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사랑하는 삶의 모델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삶의 무대에 오르십니다.

이를테면 사랑은 우리가 창작하고 만들고 각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골머리를 씹으며 만들어 내야 하는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그분의 작품입니다.

솔직히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애를 쓰거나 용을 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그분께서 앞서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 보여 주신 그대로 따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바오로사도는 ‘사랑’을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사랑이 빠진 능력은 아무리 대단하다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일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 하더라도 사랑을 무시하고 사랑 없이 얻어진 결과는 전혀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바오로 사도는 “사랑은”이라고 상세히 구별하여 설명한 것을 잘 알고 게실 줄 믿습니다 (1코린13장 참조).

참고 기다리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뽀내지 않고.....이 외에도 열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

는데 우리들이 우선 지금 말씀드린 ‘딱 다섯 가지’만 지켜도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온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기다리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뽀내지 않기만 해도 이 세상에는 이미 하늘나라를 꾸미게 될 것이라 싶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의 일정을 보면서 복음이신 주님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들의 누비고 다닌 중형무진, 그 거리를 생각해 봅니다.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안티오키아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고 격려하고”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웬기만 하기에든 눈알이 뱅뱅 도는 여정을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강행군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못살게 구는구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미지근히 사랑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겨우 사랑하며 찢끔 찢끔 치사하게 사랑을 하는 척 흉내만 내다가는 지쳐 쓰러질 것이 뻔하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꼭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누누이 당부하신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전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전부이고 복음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도 희망도 사랑에 바탕하여 자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사로 그분 사랑의 바이러스를 받아들인 사랑의 감염자입니다.

복음의 예방주사로 삶의 모든 일에 사랑으로 승리할 힘을 주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한 그분의 사랑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때 불편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힘듭니다.

복음이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오직 사랑할 때 사랑이신 그분을 닮아 묵묵히 사랑할 때 우리는 신바람 나게 살 수 있습니다.

신바람으로 전혀 힘든 줄도 모르고 피로한 줄도 모르고 어디든 쫓아가고 어디든 찾아가고 어디든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전령이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됩니다. 아멘

장재봉 신부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정성껏 들어주면 돌부처도 돌아 보신다.
말에는 자기 최면 효과가 있다.

상대편은 내가 아니므로
나처럼 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이 말을 듣는다고
미리 생각해 보고 말해라.
정성껏 들으면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지루함을 참고 들어주면 감동을 얻는다.
한쪽 말만 듣고 말을 옮기면 바보 되기 쉽다.
자존심을 내세워 말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

남의 명예를 깎아 내리면
내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 처진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진실성을 인정받는다.
말의 내용과 행동을 통일 시켜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인정받는다.

무시당하는 말은 바보도 알아 듣는다.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달린다.
말은 하기 쉽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해라.
입(말) 서비스에 가치는 대단히 크다.
당당하게 말해야 믿는다.

흥분한 목소리 보다 낮은 목소리가 위력 있다.
눈으로 말하면 사랑을 얻는다.
덕담은 많이 할수록 좋다.

공치사하면 누구나 역겨워한다.
잘난 척하면 적만 많이 생긴다.
두고두고 괴씸한 느낌이 드는 말은 위험하다.
상대에 따라 다른 언어를 구사해라.
과거를 묻지 말라.
일과 사람을 분리해라.

좋은글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기도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저희로 하여금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주님,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을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본 당 소 식

◎ 신앙 특강: 동행하는 예수님과 영육치유

일시: 5월 2일 오후 3시(오늘)

초청강사: 김영희 카타리나 자매님(대구교구 영천 본당 소속)

강사 소개: 온갖 불치병과 희귀병 중에 성령으로 치유받고 다시 태어난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고자 성서를 800번 이상 통독하여 걸어다니는 성서로 불리고 있으며, 연 200회 정도의 피정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선물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의 은총으로 인해 많은 치유의 체험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느끼는 갈등과 고뇌로 인해 지친 영육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참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변화와 평화의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천주교 한인성당 교우친선골프대회 안내

▶Tee Off : 2010년 6월 22일 화요일 오후 1시, Shot Gun 방식

▶장소 : Granite Ridge Golf Club

▶참가비 : \$ 90.00 (파워카트 및 저녁식사(New York Steak) 포함).

저녁 식사 후 각 본당 간에 장기 및 노래 자랑이 있을 예정이니 참가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세례 안내

▶일 시 : 5 월 9일 주일미사중

▶세례어린이 : 박지수 마리아, 박지희 줄리아, 박지우 솔론몬 전효, 전자민

◎ 교육관/사제관 관리 안내

▶구역별 월 2회 잔디 관리 및 청소 담당

5월 : 키치너

6월 : 브랜포드

7월 : 캄브리지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안내

▶일 시 : 5월 14일(금) 오후 7시

▶장 소 : 이 이베따자매택

▶정기적인 참석자가 아니라도 환영합니다.

◎ 안내/헌금 담당

▶5월 : 워털루 4 구역

▶6월 : 캄브리지 구역

각 담당 구역에서는 2인 1조로 미사 30분 전에 성당에 도착하여 미사 준비와 마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순회 영사 업무 안내

▶일 시: 2010. 5. 18(화) 11:00 - 15:00

▶장 소: 키치너 주님의교회

20 Bridgeport Rd. ☎ 519-883-0808

▶문 의: 워털루웰링톤 한인회 회장 (519-716-5701)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 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4월 18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614.25
교 무 금 : \$
미사성제 : \$ 5.00
성전건립 : \$ 75.00 103(20), 105(5), 130(10), 133(10), 137(20), 153(5), 154(5)
성모님동산 (누계): 금주\$5 (\$5815.00)
합 계 : \$ 694.25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 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이상희 세라피아 ☎ 519 894 3533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10-18호

2010. 5. 2.

부활 제 5 주일

해설 신 계연

차주 해설 고 영호

성 가

입 당 (46) 사랑의송가

봉 헌 (340) 봉헌

성 제 (174) 사랑의 신비

된 장 (83) 주 찬미하라

화 답 송 ◎저의 임금 하느님, 영원히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영성체 후 묵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용서와 함께 살아가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독 서

5월 2일

정동근 이윤경

5월 9일

류무열 최희수

봉 헌

5월 2일

강석균 강명숙

5월 9일

정동근 이윤경

복 사

5월 2일

안아림 노승범

5월 9일

구한힘 김건우